

유망기업·투자자 잇는 가교역 '톡톡'



클로즈업

벤처그룹 대표 이경훈 변호사

"올해는 기업 간 인수·합병(M&A)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. 이미 코스닥시장에선 M&A가 10여건 이상 이뤄지지 않았습니까.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외국 자본이 많이 대기 중이고,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국내 자본도 많습니다."

지난 14년간 김&장법률회사에서 일하다가

M&A 전문변호 14년 베테랑... "올해 인수합병 활성화 전망"

지난 2000년 서울 신사동에 '벤처그룹'을 설립하고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경훈(45) 변호사는 올해에는 M&A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국내의 대표적인 M&A 전문가 중 한 명인 이 변호사는 김&장 시절 신원그룹의 제일백화점 인수 건(1996년)과 홍콩 페레그린의 대농그룹 인수 시도(97년) 등 적대적 M&A의 공격 또는 방어 쪽 멤버로 참여했다. 또 조지 소로스의 서울증권 인수, 메디슨의 오스트리아 의료기술 회사 인수 등 다수의 우호적 M&A도 진행했다. 벤처그룹을 세운 후에도 로커스홀딩스와 시네마서비스의 주식맞교환, 네스디스플레이에 대한 칼라일의 투자 등을 대리한 바 있다.

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기업 인수 및 투자회사 '벨키리홀딩스'를 만들고, 코스닥기업인 아이즈비전의 지분 23.75%를 장내 매수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. 이로써 아이즈비전의 1대주주가 된 그는 "홀쇼핑 및 국제전화사업체인 아이즈비전은 내재가치가 큰 회사인데도 팔어나가지 못해 지분을 취득했다"며 "경영권을 인수해 기존 사업은 효율성을 제고하고, IT 등 뉴이코노미사업을 새로 전개해 회사를 키우겠다"고 밝혔다.

이 변호사는 "M&A는 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,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상시 기동케 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많다"며 "M&A기법을 공정하게 이용할 경우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 모두 윈-윈이 가능하다"고 강조했다.

또 그는 "한국의 유명 로펌과 경제 관련 변호사들의 실력은 이제 국제 수준"이라며 "보다 다이내믹하고 전문적인 일을 해 보고 싶어 김&장을 택했는데 14년간 일하며 많은 걸 배웠다"고 말했다. 숨가쁜 일상 틈틈이 영화를 보러가는 게 취미인 그는 국내 굴지의 화랑을 운영 중인 어머니(김창실 선화랑 대표)로부터는 감성경영을 터득하기도 했다.

이 변호사는 "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도 투자자를 만나지 못해 사장되는 업체를 많이 본다"며 "유망 기업과 투자자를 이어 주는 구심점이 되고 싶다"고 포부를 다졌다.

이영란 기자/yrlee@heraldm.com
사진=안훈 기자/rosedale@heraldm.com

